

## 미국, 퇴직연금 투자자를 위한 대체 자산 투자 규제 완화

손유영 연구원

### 요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01(k) 퇴직연금 투자자를 위한 대체 자산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음. 호주도 이미 자가 관리형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 기금을 대체 자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음. 최근 미국은 '지니어스법인'을 통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왔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앞으로 디지털 자산의 유입이 가져올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25년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모펀드·부동산·암호화폐 등 대체 자산을 401(k) 퇴직연금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401(k) 투자자들을 위한 대체 자산 접근성 확대(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행정명령을 발표함<sup>1)</sup>
  - '401(k) 투자자들을 위한 대체 자산 접근성 확대'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부동산·암호화폐 등 대체 자산을 401(k) 퇴직연금 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동부(DOL)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행정명령 이후 미국 노동부(DOL) 장관은 180일 이내에 고용퇴직보장법(ERISA)의 대체 자산 투자에 관한 노동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기존 수탁 의무 지침을 검토하고, 대체 자산에 투자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해야 함
    - 이에 미국 노동부(DOL)는 2025년 8월 12일, 2021년 바이든 정부 시절 발표했던 401(k)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긴 내용의 'Supplemental Private Equity Statement<sup>2)</sup>'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음<sup>3)</sup>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401(k) 퇴직연금 기금이 대체 자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
- 401(k)는 미국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로 2024년 기준 약 7천만 명(활동 참가자)의 근로자가 401(k)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며, 2025년 1분기 기준 미국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20%를 차지하고 있음<sup>4)</sup>
  - 2025년 1분기 기준, 미국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3.4조 달러로 이 중 개인연금(IRA)이 16.8조로 전체 퇴직연금 중 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DC)이 12.2조로 28.1%를 차지하고 있고, 확정기여형(DC) 적립금 중 401(k) 퇴직연금은 8.7조 달러로 확정기여형(DC)의 7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sup>5)</sup>

1) The White House(2025. 8. 7.), "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2) DOL(2021. 12. 21.), "U.S. Department of Labor Supplement Statement on Private Equity in Defined Contribution Plan Designated Investment Alternatives"

3) DOL(2025. 8. 12.), "U.S. Department of labor rescinds 2021 supplemental statement on alternative assets in 401(k) plans"

4) ICI 401(k) Resource Center

5) ICI(2025. 6. 18.), "Retirement Asset Total \$43.3 Trillion in First Quarter 2025"

- 영국의 경우 대체 자산을 퇴직연금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수수료 등의 문제로 적극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호주는 자가 관리형 퇴직연금(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 SMSF)을 통해 퇴직연금 기금을 대체 자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에도 활용하고 있음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21년 장기·비유동자산<sup>6)</sup> 펀드인 LTAF(Long-Term Asset Fund)를 도입했으며, 2023년 6월 LTAF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운용에 활용할 수 있게 했으나, 자산운용사의 14%만이 LTAF 상품을 출시하고 있음<sup>7)</sup>
  - 호주의 경우 자가 관리형 퇴직연금을 통해 사모펀드·부동산·암호화폐 등 다양한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2024년 SMSF를 통해 약 10억 4,400만 호주달러가 암호화폐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음<sup>8)</sup>
    - 호주의 일반 퇴직연금(Superannuation)은 전문 연금펀드가 운영하고, 구성원 수에 별도의 상한 규정이 없으며, 감독기관이 건전성감독청(APRA)인 반면, 자가 관리형 퇴직연금(SMSF)의 경우 가입자가 직접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최대 6명까지 구성될 수 있고, 국세청(ATO)의 감독을 받음<sup>9)</sup>
    - 일반 퇴직연금은 주식·채권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모든 책임이 전문 자격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임되지만, 자가 관리형 퇴직연금의 경우 주식·채권·부동산·귀금속·수집품·파생상품·암호화폐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책임이 수탁자와 동등하게 각 개인에게 부과됨
    - 자가 관리형 퇴직연금으로 투자된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미실현이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sup>10)</sup>
-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해 왔으며, 이어 401(k) 투자자들을 위한 대체 자산 접근성 확대 행정명령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 기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지니어스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발행자에 대해 주·연방 규제기관의 인가를 의무화하며, 지급준비금 보유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합법적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디지털 자산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
- 미국은 지니어스법과 행정명령을 통해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안전자산이 되어야 할 퇴직연금 시장에 디지털 자산의 유입이 가져올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6) 비유동자산에는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 사모대출, 부동산, 인프라가 포함됨

7) Pensions expert(2025. 7. 1.), "Mansion House Accord to drive growth in LTAF demand and supply, poll suggest"

8) Accounting Times(2025. 7. 3.), "Analysis shows lack of super tax indexation could cost government \$444m in lost revenue"

9)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Compare SMSFs with other super funds"; EPG Wealth, "SMSF vs Retail Super: A Comprehensive Comparison"

10) selfmanagedsuper(2025. 7. 1.), "Crypto holdings harder under Div 296"